

날로 심각해지는 성폭력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매맞는 아내를 비롯해 성폭행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시설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사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서울과 광주에서 매맞는 아내를 위한 '모자 일시보호시설'을 시범운영하고, 해마

가 하나 있을 뿐이어서 피해여성들이 거의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사부는 3월부터 기존 미혼모 보호시설인 서울의 자매복지관과 광주의 계명복지관을 매맞는 아내를 위한 대피소로 바꿔 피해여성과 어린이를 일정기간 보살펴주는 모자 일시

보호는 물론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단기기술교육도 할 방침이다.

매맞는 여성을 포함한 전체 성폭력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 '일시 쉼터' 설치 방안을 구상중인 정부제2장관실은 올 상반기중 성폭력문제

매맞는 아내 '일시 쉼터' 마련

보사부 3월부터 모자 보호시설 서울·광주 시범운영
상담치료·기술교육도 실시...매년 2~3곳 확대 계획

다 2~3곳씩 추가로 두어 전국 15개 시·도에 1곳씩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제2장관실은 매맞는 아내를 포함한 성폭행 피해여성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칭 '일시 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현재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보호하는 시설은 상담기관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중인 '쉼터'

보호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기업 보사부 가정복지심의관은 "최근 미혼모와 기아가 줄어들어 빈 미혼모 보호시설을 매맞는 아내들의 보호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면서 "서울과 광주의 시범운영 결과가 좋으면 내년엔 전국 6개 시도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호시설에선 피해여성의

를 여성정책심의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제2장관실에선 일시 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은 따로 확보하지 않고 전국 각 시도의 여성단체 시설과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운영한다는 입장이어서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신연숙 기자〉